

논문접수일 : 2012.12.20

심사일 : 2013.01.06

게재확정일 : 2013.01.26

하이브리드 패션의 융합 유형과 발달

- 21세기 기술과 패션디자인의 융합을 중심으로 -

The Type and Development of Hybrid fashion's Convergence

- Focused on convergence of 21st century technology and fashion design -

주저자 : 윤수인

단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인터하이브리드전공 박사과정

Yoon, Su In

Dept. Inter-hybrid design, DanKook university

교신저자 : 강혜승

단국대학교 예술조형대학 패션산업디자인과 교수

Kang, Hae Seung

Dept. Fashion Merchandise Design, DanKook university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형 융합디자인 교육 사업단'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2. 하이브리드현상의 이론적 고찰

- 2.1. 하이브리드의 개념
- 2.2. 하이브리드의 시대적 변천
- 2.3. 하이브리드 패션의 역사

3.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과 융합 사례 연구

4. 21세기 전과 후의 하이브리드 패션의 융합사례 비교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21세기 패션계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기 다른 분야 간의 정보교류가 쉬워지고 빈번해지면서 영역 간에 일어난 융합화 현상으로 소재와 디자인 면에서 다기능의 목적성을 가진 제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다기능 다목적성의 패션제품과 제품 개발 경향은 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리라 예상된다.

개발된 스마트 소재들이나, 기술이나 특정한 목적성을 패션에 접목하여 생산된 제품들은 기술적 환경을 신체에 밀착시켜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표현 창출의 원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패션과 기술의 융합은 가장 쾌적하게 기술 환경을 누리게 해주며, 또한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 창출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다양한 모습과 기능의 혼성적 융합이 이루어진 패션디자인을 이론 고찰과 실제 사례 조사를 통해 그 특성을 규명하여, 미래에 전개 될 혼성적 패션디자인 개발에 아이디어 제공과 발전방향 모색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 융합현상을 4가지(coincidental, functional, cultural, smart material)로 분류 할 수 있었으며, 21세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의 융합현상을 비교하여 분석 할 수 있었다.

주제어

하이브리드, 융합, 패션

Abstract

As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each different field upon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gets frequent, the 21st century fashion field variously shows the products of multi-purpose in aspect of materials and designs due to convergence phenomenon that happened between areas. It is expected that the tendency of developing in multi-functional and multi-purpose fashion products like this will be continued in 21st century in which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is done vigorously by high technology. The products, which produced by engrafting smart materials developed, technology or specific finality into fashion, make us use them more conveniently by making technical environment put close to human body. Also it provides basic idea for creation of creative and aesthetic expression. The convergence of fashion and technology makes us enjoy the most comfortable technology environment, and it is taking its stand as a driving force of creating a new type of beauty. Thus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the idea in development of combined fashion design which will be spread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material for searching development direction. As a result, I could classify the phenomenon of convergence into 4 kinds, and analyze in comparison of each convergence phenomenon before and after 21st century.

Keyword

Hybrid, Convergence, Fashion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패션계는 소재와 디자인 면에서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하이브리드¹⁾적 특성을 보이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필립스사의 루마라이브(Lumalive) 프로젝트의 의상들이나 하이테크와 접목을 시도한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각기 다른 분야 간의 정보교류가 쉬워지고 빈번해지면서 영역 간에 일어난 융합화 현상이라 보여진다. 또한 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이와 같은 융합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혼성적²⁾ 특성을 지닌 하이브리드(Hybrid) 패션의 출현배경과 융합화 현상 시대별로 조사하고, 이를 배경으로 현재에 소개되는 하이브리드 패션의 융합현상과 비교 분석하여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앞으로 전개될 하이브리드 패션을 보다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반요소로서 필연적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하이브리드 패션에 관한 연구들은 하이브리드 패션을 기술적인 기능성 혹은 심미적인 기준으로 분류한 연구들(김자민, 2005; 윤수인, 2010)과 특정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을 분석한 연구들(김주연, 이효진, 2005; 김유경, 2011), 그리고 현대 패션에 국한되어 조사한 하이브리드 경향연구(백정현, 2011; 하미희, 2009; 방기정, 2010; 이은경, 2004)가 대부분이다. 디지털 문화경향이 강해진 21세기를 경계로 하여 과거에서부터의 하이브리드패션의 융합현상의 발생과 유형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습과 기능을 하는 하이브리드 패션의 출현배경을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출현 배경을 알아보고, 실제 발표된 사례들을 조사하여 시대에 따른 융합현상과 유형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로 인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혼성적 특성의 하이브리드패션 제품들이 창의적이고, 인간중심의 상품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

1)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서로 다른 실체의 결합을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 요소가 형질을 유지하거나 형질을 잃고 서로 반응하여 새로운 무엇인가로 창조된 것', 즉 디자인에서는 서로 다른 디자인 분야 간의 협업과 도용으로 창출된 창조적인 것의 의미로 사용할 것이며, 협업과 도용의 과정을 융합현상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2) 본 논문에서는 혼성의 의미를 'Mixed Character'의 의미로 다른 영역간의 성격과 성향이 섞여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1.2.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의 혼성성을 다양한 영역 간의 융합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려 한다. 조사범위는 기술과 패션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패션으로 제한하며,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패션 사례들을 연구한 문헌을 조사해 분석하고 그 개념과 변천을 알아볼 것이다. 하이브리드 패션의 개념과 시대적 변천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질, 현상 또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의 의미로 '하이브리드'와 '융합현상' 그리고 '융합 디자인'을 키워드로 하여 이와 같은 분야를 연구한 문헌조사를 진행한다. 혼성성을 영역 간의 융합화 현상의 영향이나 결과라 가정하고 분석할 것이며, 분석과정 중 이와 같은 현상을 출현시킨 요인들을 알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미 21세기 들어 소개된 패션 디자인 사례 중 혼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패션사례들만을 모아 특성을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루어진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알게 된 융합현상의 출현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의 융합현상의 특성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 고찰을 통해 알게 된 요인들은 21세기 패션디자인에 혼성적 융합현상을 일으킨 중요한 요소로써 자료화 될 것이며, 이 자료와 함께 도출된 특성은 미래에 보다 선진화된 혼성적 융합화를 이끌어내는 제반요소로써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2. 하이브리드 현상의 이론적 고찰

2.1. 하이브리드의 개념

하이브리드는 사전적으로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 또는 섞여서 만듦이란 의미로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으로 다른 인종과 품종간의 교배에 의해 탄생된 이형을 의미한다. (동아 새 국어사전, 2003; Peter, 1999) 이는 두 가지로 나뉘어 첫째, 서로 다른 계통간의 교배로 태어난 동물이나 식물을 뜻하거나, 두 번째, 동일종 내에서 서로 다른 품종이나 재배종 사이의 교잡종을 뜻한다. (위키백과, 2012) 영어로는 잡종, 혼성체, 혼합물의 의미를 지닌 하이브리드(hybrid)로 표기되어지며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실체의 결합을 통해서 결합하기 이전의 주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성되어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정선, 2010; 박소라, 이정열, 2010) 하이브리드는 각 시대마다 의미와 발전과정을 거쳐, 21세기 현재 사회 문

화적으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다양한 기능과 모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위키백과, 2012) 이에 다음 장에서는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의 융합 현상과 유형연구를 하기 위한 배경과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폭넓은 의미와 개념으로 발전한 하이브리드를 시대적 흐름과 역할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2 하이브리드의 시대적 변천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이상의 섞임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공존과 섞여있는 전체라고 규정 할 수 있다. (박홍, 윤도식, 1991) 이런 하이브리드 경향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간의 다름에 대하여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19세기 절충주의 이론에서 그 이론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으며, 20세기 모더니즘에 의해 약화 되었다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혜신, 2009)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핵심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서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이를 187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서구 문명의 후퇴와 중산층 부르주아의 몰락, 그리고 합리적 세계관의 토대상실이라는 의미로 표현하였다. 프레데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라는 그의 논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상황을 말하기를 똑같이 원치 않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며, 과거의 모든 대상, 가치, 정신구조, 일을 행하는 방식들을 제거해 버리길 원한다고 하였다.(Jameson. F., 1990; 송문기, 1991)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그의 이론서 '그라타탈로지에 대하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탈중심지향'을 주장하였다.(Derrida. J., 1967/2010) 즉, 주체적인 권력을 거부하고 내부의 해체를 위해 페러디와 다원성을 위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는 상호 텍스트성, 파편화 현상, 메타픽션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면서 현대사회를 더욱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사회로 변모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박혜신, 2009)

이와 같이 한 가지 주체의 고유성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성과 부분의 수용을 패러다임으로 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을 배경으로 발전된 하이브리드는 21세기 이르러 서로 다른 실체의 결합을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 요소가 전체나 부분의 섞임으로 서로 형질을 유지하거나 형질을 잃고 반응하여 새로운 무엇인가로 창조된 것', 즉 디자인에서는 서로 다른 디자인 분야 간의 협업과 도용으로 창출된 창조적인 것의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현저히 발달된 21세기의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변혁을 가져왔고, 다양한 지역과 문화 그리고 각기 다른 영역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네트워크 중심사회로 전환시켜 주었다. 즉 다른 문화나 영역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과 수용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자, 2010)

세기	문화경향	문화경향 해석
19세기	절충주의 문화	영역간의 다름에 대하여 포용하고 이해하려 함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한 가지 주체의 고유성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성과 부분의 수용을 패러다임으로 함
21세기 초반	디지털 문화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문화나 영역간의 교류가 훨씬 쉬워짐

[표 1] 시대적 문화경향과 해석

세기	의미	역할
19세기 이전	인종과 품종간의 교배에 의해 나타난 이형의 의미	우연적 수동적
19세기	고전적 의미에서 발전, 다른 영역의 포용의 의미	서로 다름에 대하여 이해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짐
20세기	탈중심지향적 의미로 상호 텍스트성, 파편화로 해석	주체적 권력이 아닌 내부의 해체를 위한 페러디와 다원성을 위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함
21세기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실체의 결합을 통해서 결합하기 이전의 주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성되어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으로 창의성 지향	다양한 문화나 영역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과 수용을 하여 창의적 결과물을 탄생시킴

[표 2] 하이브리드의 시대적 의미와 역할 변화

이렇듯 21세기의 하이브리드는 포용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협업과 도용을 하는 융합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 문화, 하이브리드 동력, 하이브리드 건축,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패션 등이 그 예라 하겠고, 이와 같은 현상과 사례들의 출현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것의 창조와 창의성의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정선, 2010)

창조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의 하이브리드는 퓨전(fusion), 매쉬업(mashup), 크로스 오버(crossover), 콤플렉스(complex), 혼성모방, 컨버전스

(convergence)등과의 용어들과 혼용되어지기도 한다. 퓨전(fusion)은 혼합, 믹스(mix) 즉, 문화적 믹스를 주로 의미하며 서로 다른 감각을 접목시킬 때 적합한 용어라 할 수 있으며, 매쉬업(mashup)은 음악에서 두 개 이상의 음악을 섞어서 만들음에서 유래 하였으며, 기술적 조합, 복합적 소프트웨어의 구글 맵(Google Map)³⁾을 예로 들 수 있다.(위키디아) 크로스 오버(cross over)는 80년대 초 미국 컨트리 가수들이 대거 팝 차트에 진출하며 음악적 의미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용 되었으며, 음악, 스포츠, 게임, 영화 등에서 특정 장르에 다른 이질적인 장르를 불러오거나, 그 과정에서 교차하거나 만나는 효과들을 말한다.(강혜승, 윤수인, 2010) 콤플렉스(complex)는 복합, 물리적으로 합쳐진 상태 즉, 주상복합건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혼성모방은 1989년 프레데릭 제임슨이 문화영역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표현 양상을 혼성모방으로 부르며 시작된 개념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차용하여 무의미한 의미가 불확정화적인 기표들을 조합하고 편집하는 기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손향미, 박길순, 2003; 양학미, 1999) 마지막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는 기술이나 성능의 융합으로 기술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의미하여 IT나 마케팅,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에서 널리 확대되고 있다. (하미희, 2009)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용어	개념 및 특성
하이브리드 (Hybrid)	▶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것 ▶ 포용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협업과 도용을하는 융합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퓨전(Fusion)	▶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이 합해져 새로운 것이 되는 것 ▶ 주로 문화적 믹스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감각을 접목시킴
컨버전스(Convergence)	▶ 기술이나 성능의 융합 ▶ 기술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마케팅,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으로 널리 확대되고 있음
매쉬업(Mashup)	▶ 두 개 이상의 음악을 섞어서 만들음에서 유래하였음 ▶ 기술적 조합, 복합적 소프트웨어 (google service가 좋은 예)
크로스오버(Crossover)	▶ 음악, 스포츠 영화 게임 등 다른 장르가 교차한다는 의미 ▶ 타 문화 장르와 교차를 통해 새로운 장르나 형식 창출에 주로 사용
콤플렉스(Complex)	▶복합 물리적으로 합쳐진 상태 ▶ 주상 복합건물 등을 그 예로 할 수 있음
혼성모방(Hybrid)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차용하여

3) Google의 정보와 지도의 정보를 합쳐 필요한 기관이나 위치를 찾아내는 복합적 소프트웨어의 예

mimic)	무의미한 의미가 불확정화적인 기표들을 조합하고 편집하는 기법 ▶ 문화영역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표현 양상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 브랜드, 기업, 독자적인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업 ▶ 서로간의 협업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함

[표 3] 하이브리드와 혼용되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⁴⁾

앞서 언급되었듯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와 영역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협업과 도용의 융합과정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목적으로 함이 내재되어있는 21세기 하이브리드의 의미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도 혼용되어지고 있으며, 예술, 경제, 사회, 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의 의미의 시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패션의 발전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3. 하이브리드 패션의 역사

이장에서는 기술과 패션디자이너가 만나서 하이브리드의 의미를 지니는 사례들만을 모아 탄생 배경을 시대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초의 사례는 12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짙은 스모크 색의 수정 썬 글라스라 할 수 있다. 이 안경은 햇빛을 가리기위해서도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판사들이 법정에서 눈을 통한 감정 표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최초로 기술과 패션디자이너가 만나 두 가지 이상의 목적과 기능을 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다른 의미의 용도로도 쓰인 예로써 의도적인 융합이기 보다는 우연적으로 하이브리드적인 의미를 가진 예라 하겠다. 다음은 1850년대 제작된 보청기를 들 수 있다. 기능에 치중하였던 보청기가 기술의 발달로 작아지면서 형태의 변화와 함께 입는 기술로 전향되면서 기능적 목적을 바탕으로 패션과의 자연스런 융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4]

1904년 브라질의 알베르토 산토스 (Alberto Santos)는 최초의 손목시계를 만들었다. 비행사였던 알베르토에 의해 주머니시계 등의 형태로만 여겨지던 시계는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여 신체에 부착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발전되었다. 기능성을 목적으로 입는 패션아이템으로서 발전한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항공과 우주과학의 발전은 문

4) [표3]은 하미희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p.9에서 발췌한 표와 본 연구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됨.

화적 변혁으로 이를 기반으로 'Buck Roger'와 같은 패션디자이너와의 창의적 융합이 이루어졌다. 1930년대 하이브리드 패션은 소재의 발달로 개발된 나일론이나 기타 합성섬유의 영향을 받아 우주복과 스타킹 등의 소재로 소개되었으며 개발된 소재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디자인에 적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서, 패션계에서는 기능성을 위한 기술과의 융합을, 기술계에서는 기술을 입는 웨어러블 한 패션으로의 융합을 서서히 시도하는 방향으로 발전됨을 알 수 있다. 이 예로써 1960년대 파코라반(Paco Rabanne)의 스페이스 패션(Space fashion)[그림1]과 MIT 미디어랩의 스티브만 (Steve Mann)⁵⁾에 의해 개발된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념 도입사례를 들 수 있다.

기술과 패션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80년대에 리바이스와 MIT미디어랩이 공동 작업한 음악을 연주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재킷이나, 90년대의 Phillips사에서 개발한 Piano T-shirts등이 소재 개발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으로 패션에 재미나, 기능을 더하는 목적성을 가지며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2000년 이후 급속히 발전되어 이와 흡사한 다양한 사례들을 산출 하였다. [그림1] 하이브리드 패션은 개발 단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두 영역, 예를 들면, 컴퓨터 혹은 미디어와 만남 등에서 이루어지며, 그 적용 영역은 점점 확대되어 발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달해온 패션에서의 혼성적 융합현상을 각 시대의 예들과 발생배경으로 정리하면 아래[표4]와 같으며, 표의 발생배경을 근거로 다시 종합해본 혼성적 융합의 4개의 분류기준과 분류된 항목에 부여한 명칭은 아래와 같다.

- ① Coincidental (우연적 융합) : 우연히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하여 혼성성을 지님
- ② Functional(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당위적 융합) : 기능적 목적을 우선시하여 기술을 패션과 융합시킴
- ③ Cultural(문화의 변혁으로 인한 창의적 융합) : 변화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디자인 관점에서 기술과 융합시킴
- ④ Smart Material(개발된 기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 : 여러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 소재나 기타 진보된 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디자인에 융합시킴

위와 같이 도출된 4개의 분류기준과 명칭을 가지고 다음 장에서는 21세기에 발표된 하이브리드 패션

5) MIT에서 최초로 피지컬 컴퓨팅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으로서, 이때부터 컴퓨터를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사례와 융합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850's 심미적 보청기	1900's First Wrist Watch
	
1920's 'Buck Rogers'	1960's Paro Rabanne's Space fashion
	
1960's space fashion	1960's 피지컬 컴퓨팅 개념정립 웨어러블 컴퓨터 개발
	
1980's Levis 전도성 실을 넣어 약기를 연주하는 재킷	1990's Philips 뮤직 t-shirts
	
2000's 하이테크 소재들과 기술 그리고 컨셉이 접목된 다양한 혼성적 패션디자인 사례 출현	

[그림 1] 시대별 혼성적 패션의 사례 이미지

시대	사례	탄생배경
12세기	Smoked 색안경	♦ 우연적 융합
1850년	보청기	♦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당위적 융합
1904년	손목시계	♦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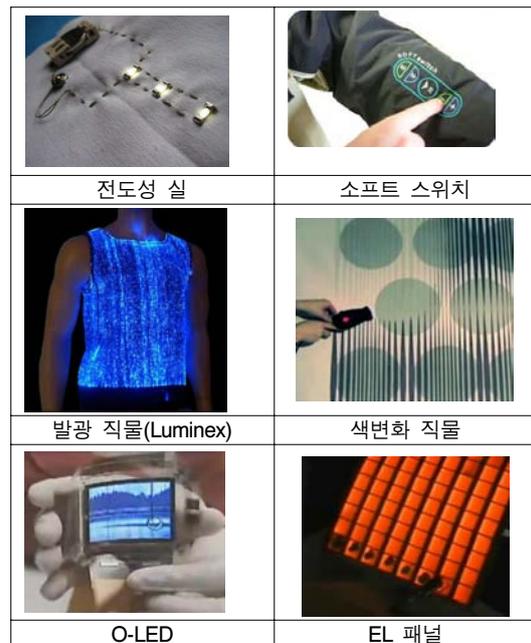
1920년 ~30년대	Roger and the worlds fair	• 당위적 융합 • 문화의 변혁으로 인한 창의적 융합
1930년대	synthetic fiber발명, 스타킹과 우주복	• 개발된 기 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
1960년대	파코라반, 우주탐사에 영향을 받은 옷	• 문화의 변혁으로 인한 창의적 융합
	MIT 피지컬 컴퓨팅 개념정립 웨어러블 컴퓨터 개발	•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당위적 융합
1980년대	Levis 전도성 실을 넣어 악기를 연주하는 자켓	• 개발된 기 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
1990년대	Philips 뮤직 t-shirts	• 개발된 기 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
2000년 이후	하이테크 소재들과 기술이 접목된 다수의 패션디자인 사례 출현	• 문화의 변 혁과 개발된 기술과 소재 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 합 ,당위적 융합의 복합 적 요인

[표 4] 혼성적 패션의 시대별 발전과 발생배경

3.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과 융합사례 연구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테크놀로지와의 융합으로 탄생된 사례가 다수이다. 20세기 후반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념정립과 그 후 이어진 스마트 소재들의 개발은 한 가지 소재나 콘셉트로 표현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의상에는 사용될 수 없었던 소재와 재료들을 혼합시키고 복합하여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허정선,2010) 예를 들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개발된 전도성 실, 소프트 스위치, 발광 직물과 색 변화 직물 그리고 EL패널과 flexible LED모니터 등은 착용의 불편함과 불가능성을 해소시켜 21세기 혼성적 패션의 발전을 가속화 시킨 스마트 소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림2] 참고

또한, 스마트소재를 기반으로 더 진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패션과 융합시킨 사례들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하이브리드 패션은 '2.3 하이브리드 패션의 역사'장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발달, 문화변혁, 소재개발, 창의적 디자인 시도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되었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21세기의 혼성적 융합현상이 패



[그림 2] 스마트 소재들의 이미지

션디자인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특성을 규명하는 분석의 기준으로 앞장의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분류 기준 즉 Coincidental, Functional, Cultural, Smart Material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을 년도 순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발표된 후세인 살라얀의 'Before minus now', [그림3]-1는 리모트 콘트롤러의 작동으로 드레스의 일부가 열렸다 닫혔다하는 움직임은 드레스로써, 개발된 기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그림3]-2의 스킨테틱 (Skinthetic)은 의류나 제품에 적용되는 수준의 브랜드 이미지가 유전 공학이나 성형외과 기술과 결합될 가능성을 상상하여 발표된 사례이다. 문화의 변혁으로 인한 창의적 융합에 속하는 사례이다. 2003년 Joanna 와 Vincent가 발표한 사운드슬리브스(SoundSleeves) [그림3]-3는 자켓 안쪽으로 평면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는 기술을 접목시킨 작업으로 사용상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한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당위적 융합이다. [그림3]-4의 센서티브 슈즈(Sensitive Shoes)는 2004년 발표된 것으로 LED를 구두에 접목시킨 신소재의 창의적인 디자인 적용인 개발된 기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이며, [그림3]8과 10의 후세인 살라얀의 2007년과 2008에 각각 발표된 에어본 (Air Borne)과 리딩스(Readings)도 이와 같은 맥락의 융합 방법인 기술, 소재 개발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이다. [그림3]-5의 2007년의 스프레이 언 페브릭 (Spray on Fabric)'은 신체에 라텍스를 직접 분사하여 페브릭 대신 신체를 덮는 창의적 디자인의 개발된



[그림 3]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 사례 이미지

기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이며, [그림 3]-6은 2007 스튜디오(Studio)5050의 스웨터로써, 서로 안았을 때 교감함을 보여주는 상호간의 소통을 문화적 한 창의적 인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인 문화의 변혁으로 인한 창의적 융합으로 볼 수 있다. [그림3]-7 과 13그리고 14는 각각 2007의 엔젤라 장(Angela Chang)의 엠피쓰리 재킷과 2008년 큐트 써킷(Cute Circuit)의 엠드레스(M-Dress), 그리고 2009년의 카세트 플레이어 바지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디바이스

의 인터페이스를 옷에 부착시켜 사용상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한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당위적 융합에 속하며, [그림3]-9 는 2007년 워킹시티(walking city)로써 신소재를 패션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형태변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개발된 기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이다. [그림3]-11의 2008년 열에 의한 색상변화 드레스와 [그림3]-15의 LED갤럭시드레스도 모두 워킹시티와 같은 개발된 기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에 속한다. [그림3]-12의 2008년 테이크남햇(Taiknam Hat)은 센서를 통해 반응하는 모자로써 문화적 감성표현의 문화의 변혁으로 인한 창의적 융합이며, 2010에 발표된 '태양열 재킷'과 움직임 을 신호로 알려주는 세일백(Seil Bag)[그림3]-16 과 [그림3]-18은 기능적 목적성을 가지고 기술을 패션에 도입한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당위적 융합에 해당된다. [그림3]-17은 잉지아오(Ying Gao)의 2010년 인터랙티브 드레스(interactive dress)로써 신소재를 사용한 형태변형을 보여주는 개발된 기술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이다.

위의 모든 사례들을 분석한 것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 [표5]와 같다.

분류 명칭 및 내용	21세기 혼성적 패션디자인 사례 해당 개수		
Functional : 기능적 목적을 우선시하여 기술을 패션과 융합시킴			
Cultural: 변화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디자인 관점에서 기술과 융합시킴			
Smart Material : 스마트 소재나 기타 진보된 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디자인에 융합시킴			
.Coincidental : 우연히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하여 혼성성을 지님	없음		

[표 5] 발생 배경에 따른 사례 분류결과

결과표를 종합하여 본 결과 2장에서 도출한 혼성적 융합현상의 발생배경과 요소가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는 있었으나 누락되거나 분류기준의 의미가 더 폭 넓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다음 장에서는 21세기 전후의 하이브리드 패션의 혼성적 융합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4. 21세기 전과 후의 하이브리드 패션의 융합사례 비교 분석

21세기 혼성적 패션과 그 이전의 것을 비교해 가장 특성은 하이테크놀로지가 패션과 융합되어 새로운 심미적 표현의 제공과 함께,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연의 효과나 수동적인 융합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례개발을 위한 융합이 다수를 이룸을 알 수 있다. 기술과 신소재의 개발을 통해 새로움을 표현하거나, 신체의 건강을 체크하거나 기타 센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성, 모바일 폰이나 기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감정과 표현을 하는 상호 작용성, 그리고 신체에 최대한 가깝게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편리성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참고

• 융합 현상의 분류 및 명칭	•21세기 이전	•21세기 이후
Coincidental: 우연적 융합	우연히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여 혼성성을 지님	융합현상이라 보기 힘들
Functional: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당위적 융합 :	기능적 목적을 우선시하여 기술을 패션과 융합	신체에 최대한 가깝게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편리성중심
Cultural: 문화의 변혁으로 인한 창의적 융합 :	변화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디자인 관점에서 기술과 융합시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성, 모바일 폰이나 기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감정과 표현을 하는 상호 작용성 중심
Smart Material: 기술, 소재 개발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융합 :	스마트 소재나 기타 진보된 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디자인에 융합시킴	기술과 신소재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표현

[표 6] 분류기준 의미 비교표

5. 결론 및 제한점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21세기 하이브리드 패션과 그 이전의 것을 비교해 가장 특성은 우연의 효과나 수동적인 융합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례개발을 위한 융합이 다수를 이룸과 동시에 하이테크놀로지가 패션과 융합되어 새로운 심미적 표현과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능과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제공, 사용하기 위해 환경으로써 그리고 신체와 가까이 밀착되는 결과로써 다양한 혼성적 융합의 패션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소재와 하이브리드 패션 사례들은 과거 우연한 융합의 결과물을 얻거나, 기술이나 특정한 목적성을 패션에 접목하던 경향에서 더욱 나아가, 21세기 인간이 누리고 있는 기술적 환경을 신체에 밀착시켜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Health Care나 문화적 재미 등을 제공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주거나 새로운 소재를 통한 신선한 아이디어의 창의적 심미 표현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색을 맞추고 형태의 디테일에 집중하던 패션은 이제 기술을 가장 쾌적하게 누리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해소시켜 줄 융합의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현재 기술을 적용한 디자인의 크기를 작게 줄여, 무엇이든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의 크기를 지향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특별한 장치 없이 기술을 입고 누리려는 인간중심의 환경을 위해 혼성적 융합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융합현상은 신체에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패션과 필수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혼성적 융합현상의 발생배경을 4가지로 나누었고, 그에 따라 2000년 이후 하이브리드 패션 사례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복잡성과 다양성에 따라 융합현상의 발생배경과 그 사례는 본 논문에서 분류 지은 것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된 요소들과 현상들이 기반이 되어 미래에 전개될 하이브리드 패션의 제반요소로 사용된다면, 인간중심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하이브리드 패션으로 더욱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혜승, 윤수인 (2010). 패션과 기술이 결합된 웨어러블 하이브리드 의류. 『디자인학연구』, 23(3),

- 5-15.
- 김유경 (2011). 이상봉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5), 105-113.
 - 김자민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르간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연 (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13(3), 300-313.
 - 방기정, 김경희 (2010).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문화연구』, 18(1), 64-79
 - 박소라, 이정열 (2010). 현대 건축의 혼성적 특성. 『디자인학연구』, 23(1), 257-266.
 - 박혜신 (2009). 후세인 살라얀 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R&D』, 1, 42-54.
 - 박 흥, 윤도근.(1991). 현대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7(5), 83-92.
 - 백정현 (2009). 「문화·예술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향미, 박길순 (2003).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혼성모방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7(8), 981-991.
 - 양향미 (1999).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자 (2010). 「건축과 헤어디자인에 표현된 하이브리드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Hybrid)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The 21st International Costume 학술발표자료.
 - 하미희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 세계 4대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허정선.(2010).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1), 107-119.
 - Anold T. (1987). A Study of History. USA: Oxporf University Press.
 - Derrida J. (1967). 김성도(번역) (2010) . 『그라마톨로지』. 서울: 민음사.
 - Martin, S. (2010). Future Fashion. Spain: Promopress.
 - Jameson. F. (1991). 송문근(번역) (1991).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외국문학.
 - Peter Zeller. (1999). Hybrid Space : New form in Digital Architecture, London : Thames & Hudson.
 - Sabine S. (2008). Fashionable Technology. New York: SpringerWien .
 - Sarah E. Braddock C. & Marie O. (2007). Techno Textile2. London : Thames & Hudson.
 - (2011.05.03). <http://.EzineArticles.com>
 - (2011.04.20). <http://eunjis.tistory.com>
 - (2011.05.22). <http://www.newscenter.philips.com>